

여수세계박람회

국회박람회지원특위-조직위 간담회

“성공개최 관건은 관람객 유치
숙박·교통·할인책 마련해야”

강동석 위원장 “외국인 불편없게 면세점 적극 홍보”

국회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위(이하 여수박람회특위·위원장 김성곤 의원)는 24일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의 관건은 관람객 유치다. 이를 위한 숙박·교통·할인 혜택 문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여수박람회특위는 이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위원장실에서 연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와의 관람객 유치 대책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를 찾은 장애인·국가유공자·군인 등에게 주는 할인 혜택이 있는가”라고 묻은 뒤 “군인의 경우 장교·사병 할인은 물론 보병학교 등 임관 전인 이에게도 할인을 주는 것도 관람객을 유도하는 방법 중의 한 가지”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인천에서 여수세계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여수가 아닌 경남 남해에 숙소를 정했다는 얘기를 지인으로 부터 들은 적이 있다. 여수에 숙박 시설이 부족한 것이냐”라며 “행사 초기 여수 숙박업소 주인들이 숙박비를 너무 비싸게 책정해 역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정 의원은 “현재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면세점이 있는가”라며 “외국인 관람객 수가 증가 추세인데, 잘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 외에도 교통 혼잡·접근성 불리·홍보 부족·과다 수요예측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강동석 위원장은 숙박시설 문

제와 관련 “숙박업소 주인들의 과다 경쟁으로 가격 인상을 부추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정 결의 등을 통해 많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숙박업소와 관련,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세점 운영과 관련해선 “현재 롯데 면세점이 일점해 운영 중인데, 25일에도 일본인 400명이 면세점을 이용키로 예약하는 등 외국인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외국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김성곤 위원장과 새누리당 박상은·김정·정수성·홍일표 의원 등 5명이 참석, 조직위와 관람객 유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간담회 직후 여수박람회장의 아쿠아 플라넷·주제관·기후 변화관·지자체관 등을 3시간 동안 둘러본 뒤 상경했다. /여수=이종행기자 galee@



엑스포 찾은 中 왕즈전 부주석 24일 여수엑스포를 찾은 왕즈전(오른쪽) 중국 인민 정치협상회의 부주석과 강동석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왼쪽)이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왕즈전 부주석은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 정부 대표단의 여수세계박람회 참가를 약속했다. /연합뉴스

파라과이 대통령 28일 방문

미·중 정상급 인사 방문 여부 관심

■ 각국 정상들 누가 올까

여수세계박람회 국가의 날 행사에 맞춰 각국 정상들이 잇따라 여수를 찾고 있다.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등 세계 거물급 정상들의 여수 방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8일 파라과이 국가의 날을 맞아 페르난도 루고 멘데스 파라과이 공화국 대통령이 박람회장을 찾는다. 루고 대통령은 파라과이 전시관을 둘러본 뒤 박람회장 일대에서 펼쳐지는 문화공연 등을 관람할 예정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이날 박람회장을 찾아 루고 대통령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7월 4일), 중국(6월 28일), 일본(6월 2일) 등의 열개 국가의 날 행사에도 각국 정상들이 박람회장을 찾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동부재보=김창희기자 chkim@

미국은 현재까지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이 박람회 기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은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밀접한 외교 관계와 박람회와 인연이 깊은 미국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해 볼 때, 오바마 대통령의 여수행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도 현재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국가의 날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여수 방문도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박람회 전야제와 개막식이 열린 지난 11일 덴마크의 프레데릭 크리스티안 왕세자와 메리 도널드슨 왕세자비 내외, 모나코의 알베르트 2세 국왕과 샤를렌 왕비,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과 실비아 왕비 등이 여수를 찾았다. /동부재보=김창희기자 chkim@

“크루즈서 환상적인 여수 야경 만끽”

하모니크루즈, 1박2일 프로그램 운영

“여수세계박람회 관람하고 여수 밤바다에서 환상적인 야경도 구경하세요.” 한국 최초 정통 크루즈 선사 하모니크루즈가 오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여수박람회 기념 ‘오픈 크루즈 운항’을 한다. 오픈 크루즈는 박람회장을 출발, 해상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오전 여수로 돌아오는 1박 2일 일정이다. “클럽하모니호” 탑승 후 크루즈 여행의 꽃인 갈라디너와 선상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객실 숙박과 특급 호텔 수준의 조식이 포함돼 있다. 가격은 2인 기준으론 최저 30만원(부가세, 봉사료 별도)이다. /동부재보=김창희기자 chkim@

갈라디너를 포함하지 않으면 2인 기준 최저 22만원(부가세, 봉사료 별도)의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하모니크루즈의 한 관계자는 “1박 2일 일정의 오픈크루즈는 크루즈의 낭만을 짧지만 알차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클럽하모니호는 총 383개의 객실로 10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야외 수영장, 대형극장, 고급 레스토랑, 피트니스 클럽, 스파 등의 시설과 빅밴드 스윙 쇼, 댄스 강사, 보드게임 등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통 크루즈 선박이다. /동부재보=김창희기자 chkim@

평일 가족체험 학교 출석으로 인정

정부, 단체관람객 유치 측면 지원키로
‘지자체의 날’ 해당 공무원 방문 유도

여수세계박람회의 초반 흥행 부진과 관련,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단체관람객 유치를 위한 측면 지원에 나섰다. 지난 17일 열린 제13차박람회 정부 지원실무위원회 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은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평일 가족 단위 체험학습을 학교 출석으로 인정하고, 학생 동아리나 청소년 단체의 체험·수련활동을 박람회장에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감협의회 등 교과부와 산하기

관 각종 회의와 행사·워크숍도 여수에서 치르기로 했다. 또 외교통상부는 전 재외공관에서 박람회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한인단체를 통한 홍보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박람회 관람을 위한 연가 활용과 상시학습으로 인정해 지자체 공무원의 관람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날’ 행사에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방문을 유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이란 등지의 외신기자 초청 캠프어를 열고, 해외 홍보관을 활용해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알리기로 했다. 또 ‘엑스포 패키지’ 특별 상품을 개발해

서울역, 부산역, 익산역에서 판매하기로 했고 일본·중국 대상 전세기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부는 산하 60개 공공기관에 대한 입장권 예매 계획을 조기에 집행하며 공공기관 포상 수상자의 박람회 견학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고, 국토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직원들이 5~6월에 박람회장을 조기 관람할 것 등을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입장권을 활용 ▲박람회 관련 교통비를 대폭 인하 ▲특정일권 폐지 ▲온라인 예매 입장권 배송기간 단축(현재 7~10일) ▲불만 폭주하고 있는 콜센터 인원보강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배려 ▲운영요원 교육 철저 등의 전반적인 운영 보안책도 논의됐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박람회장 공기질 좋아졌다

14곳 2차 조사 결과 정상

품질데하이드가 과다 검출돼 문제를 일으켰던 여수세계박람회 전시관 내 공기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24일 “지난 21~22일 이틀간 국제관 7곳과 지자체관 4곳, 해양로부관 3곳 등 품질데하이드 다량 검출된 14곳의 공기질을 측정해 결과 26.56~74.44µg/m³를 기록, 유지기준(100 µg/m³) 이하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측정은 전시관에 설치된 공조기와 환기시스템이 완전 가동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다. 전시관별로는 국제관 33.09~66.18 µg/m³, 지자체관 26.56~72.14 µg/m³, 해양로부관 36.39~74.44 µg/m³였다. 박람회 조직위는 전시관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기를 가동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한돈' (Han-don) featuring a pig illustration and text: '나는 한돈이다', '대박나는 체인사업!!', '부담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하세요'. It lists menu items like 돼지갈비, 생삼겹살, 갈매기살, 생오리 and prices. Contact info: 062-264-5343, 062-265-8900, 010-7118-5514.

Advertisement for '칠만표 방수제' (Chilmanpyo Waterproofing) with 'SINCE 1988' logo. Text: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Includes photos of construction sites and contact info: 서울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